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은경

2005년 8월

#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은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

##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최 은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집대상을 제주도내 대학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 550명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59 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주축으로 수정 사용한 김주분(1994)의 설문지로서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의사소통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고,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검사하기 위해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 성향 검사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지는 7개 하위영역(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에 의해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성별, 학력별,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며, 비난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아버지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혼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며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어머니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며, 비난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반항-불신적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어머니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이 강하고 혼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며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둘째, 아버지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일 경우 자녀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일 경우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된다. 아버지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고,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어머니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일 경우 자녀는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독립-책임감적, 지배-우월적 성향을 보이고, 비난형

일 경우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된다. 어머니가 평가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을 보이고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되며, 혼란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셋째,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동정-수용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동정-수용적,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가 반항-불신적 성향과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되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지배-우월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독립-책임감적, 반항-불신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형은 자녀가 반항-불신적 성향 되도록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성향과 지배-우월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여자가 남자보다 사교-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이다. 가정이 화목할수록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을 갖고, 화목하지 않을 때 반항-불신적 성향을 갖는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	5
2.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	13
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	1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21
1. 연구대상 .....	21
2. 측정도구 .....	22
3. 자료분석 .....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5
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25
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	34
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	37
4. 성별, 부모의 학력별, 가정분위기별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검증 .....	41
V. 요약, 결론 및 제언 .....	47
1. 요약 .....	47
2. 결론 .....	53
3. 제언 .....	55
참고문헌 .....	56
Abstract .....	61
부록 .....	65

## 표 목 차

<표Ⅱ-1> 네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	12
<표Ⅱ-2> 대인관계 성향 모형 .....	18
<표Ⅲ-1>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 .....	21
<표Ⅲ-2> 의사소통유형별 신뢰도 .....	22
<표Ⅲ-3> 대인관계 성향 검사의 문항 구성 .....	23
<표Ⅳ-1> 아버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26
<표Ⅳ-2> 아버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27
<표Ⅳ-3> 아버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28
<표Ⅳ-4> 아버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29
<표Ⅳ-5> 어머니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31
<표Ⅳ-6> 어머니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32
<표Ⅳ-7> 어머니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33
<표Ⅳ-8> 어머니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34
<표Ⅳ-9> 아버지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	35
<표Ⅳ-10> 어머니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	36
<표Ⅳ-11>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	38
<표Ⅳ-12> 어머니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	40
<표Ⅳ-13>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41
<표Ⅳ-14>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43
<표Ⅳ-15> 어머니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44
<표Ⅳ-16>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46

## 그림 목차

[그림Ⅱ-1] Leary의 대인관계 행동 8차원 .....	15
[그림Ⅱ-2] Kretch의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 .....	17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사소통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상호간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등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유대관계가 깊어지게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은 갈등을 최소화하여 단결과 애착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나 사회에서 자녀들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관계는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의 성격발달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매개체인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간다(김양숙, 1995).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장 발달이나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매스컴의 발달과 가족 구조의 변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맞벌이 부부 증가, 부부 이혼율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으로 의사소통의 형태가 역기능적인 경우가 많다(고상미, 2000).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Gordon,T, 1974). 이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사회성이 약화되고, 가정 내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형제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따라 자녀들의 대인관계는 점차로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여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에 대한 압박감, 성적저하, 그



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강명호, 1996). 또한 청소년기는 인간발달 단계에서 볼 때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기에서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심리적 독립 욕구의 증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내적 긴장과 정서적 갈등을 겪게 된다. 더욱이 부모의 보수적인 권위주의와 자녀의 평등적 개인주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오해나 갈등, 그 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정명희, 1988),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이 인간관계 발전과 아울러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다(정혜영, 1987; 김미호1989; 민혜영, 1990).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에의 적응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교수와 선배, 친구 등 새로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적응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나 상담소에 대학생활의 부적응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 중에는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차적인 상담문제가 대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대학생활의 부적응문제 중 많은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대인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권석만, 1995).

이렇게 대학시기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는 그 시기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한 그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대학생 때의 대인관계가 이후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애순·윤진, 1997). 또한 인간은 생애의 전 과정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내게 되므로 대인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은 개인의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안범희, 1984).

이렇듯 대학생활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성장과정을 통한 타인-가족이나 또래의 친구, 선

생, 이웃, 친지의 영향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발전한 Bowlby(1973)등의 애착이론가들은 초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있음을 나타내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방문희, 199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송여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김경희,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오선주, 2004) 등이 있다.

의사소통이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전 성장과정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상호작용으로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중 초기와 중기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지각할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거나, 비난하고, 평가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문제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제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4.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가설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모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부모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부모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부모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의사소통 개념과 유형,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공유) 혹은 communicare(공동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며 마음의 결합, 공유의 상징이 성립함을 의미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유영주, 1998).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대화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Hovland(1953)는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수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극(언어적 자극)을 보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Satir(1972)는 “언어행동에 사용하는 것과 비언어적인 행동에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영주(1998)는 의사소통은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였고, 박연호(1999)는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유미(1997)는 의사소통을 인간의 감정,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 Bienvenu와 McClain(1970)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나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감정과 의미들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Satir(1972)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써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Rice와 Tucker(1976)은 의사소

통은 사람 사이의 감정, 태도, 사실, 신념 그리고 사상의 전달과정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의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Paolucci, Hall 그리고 Axinn(1977)은 의사소통을 가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을 창조하는 정보체계, 모방된 교환물로서 의사결정 과정 수행상 필요하다고 했다(김오남, 1994, 재인용)

Myers 와 Myer(1973)은 의사소통을 첫째, 개인의 인간성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며 둘째, 자극과 반응, 수신자와 송신자, 메시지, 기호화 과정, 기호 해독과정, 되돌림, 자각, 자기표현들로 구성된 인간관계의 매개체이고 셋째, 과거, 미래, 현재를 거쳐 계속되고 넷째, 대인관계에서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섯째, 태도, 생각, 사상, 느낌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여섯째,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고영복(1977)은 의사소통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입수, 기분전환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양희(1989)는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최초의 사회화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생활에서 최초로 만나는 타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체의식을 형성하고 인성발달을 이루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목적을 향해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Olson, Sprenkle 과 Russell(1979)은 의사소통이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매일의 생활에서 가족들 간의 감정을 유지시켜 주고 가족의 상호활동을 조장시켜 주며 성인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며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성태, 1985, 재인용).

부모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Foley(1974)는 주장하고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1988, 재인용)

과거에는 가족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중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였으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추세인 현대에 들어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가정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장호선, 1987).

의사소통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일치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일치하지 않는 면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 이러한 이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하다(Balswick, 1978). 즉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함으로써 마음의 연결을 이루며 상대의 인성을 알게 되고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방정복, 1980)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인하여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불일치가 심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소통은 각자가 처해 있는 난관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세대간의 차이와 입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행동 특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심혜영, 1993).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자녀간의 기능적이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격 및 인성 발달과 바람직한 대인관계형성을 위하여 기능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을 보는 관점은 학자들에 따라 각각 정의를 달리하는데 그 차이는 내용

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에 관한 것으로, Galvin과 Brommel(1986)은 의사소통과정이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형된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재인용).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호분명한 의사소통 선이 성립되고 유지되며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Froma Walsh, 1983; 김경화, 1989, 재인용).

Watzlawick, Bavelas 와 Jackson(1967)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발생하게 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김경화, 1989, 재인용).

첫째, 의사소통거절이다. 의사소통에 흥미가 없고 무뚝뚝하며 상대를 긴장시키고 침묵을 지키며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그러나 관계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과도수용이다.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 감정, 신념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끝까지 알고자 하며 상대방이 일단 반응을 시작하면 점점 멈추기가 힘들게 된다.

셋째, 무의미한 의사소통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우 효과 없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즉 일관성이 없는 것, 자주 화제를 바꾸는 것,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 미완성된 문장을 사용하는 것,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증상적인 의사소통이다. 자신의 결함, 무능함, 불가능한 것을 정당하게 의사소통하려는 것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중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뜻하며, 불평·불만이 많으며 평가적이고 모든 것을 아는 척 하고 분명하지 않고 모순되게 말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애매모호하며 자신감 없게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송성자(1985)는 한국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권위지향형·불성실지향형·생지향형·지배지향형·소심지향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창숙(1987)은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친숙형·성실형·분석형·타인지향형을 제시하였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는 권위형·희생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의사소통 이론 중 특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연구한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Satir(1972)에 따르면 문제의 가정들은 모두 이중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중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셋째, 다른 사람의 보복을 걱정하고 넷째,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다섯째,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이외의 어느 것도 의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나 상호작용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Satir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추측하고 가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가정해서 행동하고 추측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고 계획된 목적이나 결과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고 불신과 좌절로 거부나 회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감이 깨지고, 애정의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서로 강한 대립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가치가 위협을 받고 위기를 느낄 때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한다고 한다.

Satir(1983)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원인을 ‘자부심의 결여’라고 보고 이것을 ‘pot level’이 낮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상담과 치료의 경험에 준거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을 회유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평가형(computing), 혼란형(distracting)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회유형(placating)은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여리고 인정이 많으며 대체로 갈등을 회피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분노를 감춘다. 표면적으로는 만족한 듯이 행동하나 내면적으로는 당연시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으며 타인을 통해서만 자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희생적인 사람이다. 회유할 때 자신은 편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해 주는 것이다. 회유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남의 기분을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쁜 일은 자기가 책임지려 한다. 지나친 겸손, 해주어야 소용없다는 생각, 무력감, 무조건 참고 동의함,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음,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함 등도 그 예에 속한다.

둘째, 비난형(blaming)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하며 자기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긴다. 대체적으로 완고하며 독선적이고 명령적이다.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므로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려 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강함과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강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남의 말도 무시하는 스타일이다. 오직 자신의 사고가 제일이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흑백논리에 의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다. 비난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며 다혈질적이며 혈압이 쉽게 오른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며 감정에 의존적이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복종하고 회유적인 반응을 보이면 비난하는 태도는 더 강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줄기를 바라며 요구가 많고 화가 난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셋째, 평가형(computing)은 메시지에 분석적이며 비판하며 따지는 스타일이다.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오직 상황만 중요시 여긴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세심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두철미하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길 좋아하며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강박적인 성향이 강하고 타인의 실수나 잘못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형-의사소통의 소유자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매우 냉정하며 차갑고 쌀쌀맞다. 내면적으로는 약하여 쉽게 상처받기 쉽지만 외부로 절대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평가형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냉정하고 차분하며 비사교적이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평가형의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정이 없고 객관적이다. 의사소통을 할 때 가능한 결함 없이 말하고 생각하려고 하며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아주 자세히 말하고 길게 설명한다. 대인관계에서도 융통성이 없고 원칙 중심이라서 재미없고 강박적으로 보인다.

넷째, 혼란형(distracting)은 주의가 산만한 유형으로 의사소통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행한다. 자기,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접촉하기 가장 어렵다.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없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안절부절 한다. 자신의 신체운동이 활발하며 주의집중이 어렵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모든 욕구들을 숨기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 무관하게 부적절하게 반응한다. 주의가 산만한 반응은 무서운 고독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데서 온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대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정확한 답을 회피하고 솔직하지 못하다. 분주하고 바쁘게 하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볍게 생각하며 위선적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단어, 정서, 행동, 내적 경험,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 초점 별로 <표Ⅱ-1>을 재구성하였다.



<표Ⅱ-1> 네 가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풍자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단어	“내 잘못이야”, “-했으면 좋을 텐데”,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하는 단어 사용, “너는 정말 무엇을 제대로 못해”, 비난과 질책의 표현	일반적인 단어사용, 상황하게 설명하는 태도, 추상적인 단어사용	내용의 요점이 없다. 주제를 자주 바꾸는 말 사용
정서	죄책감, 우는 표현, 억압된 분노, 변명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	융통성이 없음, 화내고 분노함이 무차별적임, 다혈질적임	냉정하고 차갑고 이성적임, 긴장의 연속, 경직됨.	혼란스러움, 불안정, 불안한 마음
행동	순교적, 모두 수용하는 태도, 상대방을 위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한다.	공격적, 비난적, 비판적, 명령적	원리원칙대로 함, 권위적임, 이중성	주의산만, 부산하게 움직임, 눈에 띄게 신체적인 활동
내적 경험	나는 가치가 없다. 분리나 헤어짐의 두려움이 강하다. 타인을 위해 존재 한다.	가치상실, 열등의식, 내적 상처가 크다, 외롭다	감정의 동요나 흥분에 불안함, 변화에 대한 위협.	무가치와 고독의 경험, 소외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을 원함
심리적 영향	신경과민, 우울증, 자살적인 성향, 자기학대	과대망상, 이탈행동, 공격적 태도	강박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하다.	혼돈됨, 위선적, 정신병
신체적 영향	소화기관의 고통, 위 장애, 당뇨, 편두통, 변비	고혈압, 혈액순환의 어려움, 근육긴장	근육경직, 근육통, 심장마비, 성기능저하	신경계통의 장애, 위 장애, 당뇨, 편두통, 비만
초점	자기 자신을 무시, 상황과 다른 사람을 중요시 함	다른 사람 무시, 자기와 상황만 강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시, 상황만 중시함	자신과 다른 사람 상황을 모두 무시함

## 2.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대인관계란 개념은 사회학 분야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오다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대인 관계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한광희, 1986).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한 자기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정보의 정도,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정도, 상호간의 정의적 우대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지용근, 1996).

Heider(1964)는 대인관계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소수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라고 하였다. 또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행동을 타인과의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인관계란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대인관계에 관한 이론적 측면은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대인 지각의 양상에 주목한 형태 심리학적 견해, 대인관계가 문화적 소산,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목한 신 프로이트 학파, 자아개념에 근거를 두고 발전되어온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학파, 모방 행동을 중시한 행동주의적 입장과 행동주의적 영향을 받아 대면적 대인관계에 주목한 교환이론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이 인간관계의 사실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인본주의적인 견해도 있다.

Horney, Fromm, Erikson, Sullivan 등 신프로이트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성격의 형성은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문화적 소산이며, 개인의 정신병학은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 포함되거나 진행되는 과정 즉 대인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Sullivan(1953)은 개인의 성격 자체를 대인관계적이라고 하였으며, 성격의 동기적인 힘(motive force)은 불안의 도피이며 이러한 불안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인행동의 보편적인 기초는 만족과 안전의 추구이며 수유를 통해 경험하는 최초의 대인관계는 수유의 쾌·불쾌에 따라 대인관계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후의 대인관계의 원형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종합하면 대인관계의 주된 동기는 불안의 감소 또는 불안으로부터 도피하여 안전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데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대인적 접촉을 하게 되므로 대인관계의 양태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모자 관계라는 것이 신프로이드 학파의 공통된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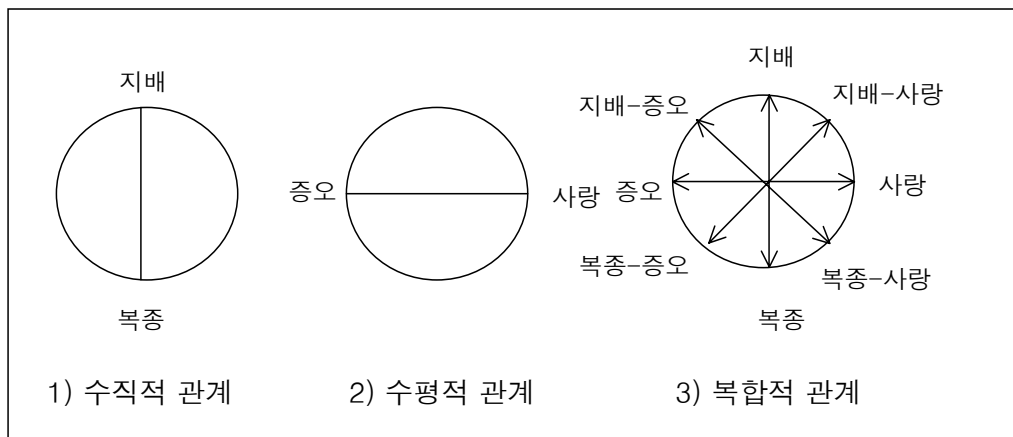
이러한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Leary는 대인관계 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128개 목록에 기초한 16개의 대인상호작용범주를 원형도식적 관계의 차원으로 배열하였다(Leary & Coffey, 1955, 재인용). 이에 따르면, 성격은 개인에 의해 표현된 대인관계적 반응의 다양한 수준의 양태이며, 대인행동의 목적은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체제를 구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신프로이드 학파에서는, 가족을 문화의 기본적인 대행자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인관계의 성향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대인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을 정리해보면 대인관계의 목적 및 기능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 이해 및 통제, 교환, 도움을 주고받음, 의미의 추구를 통해 형평, 적응, 만족스러움 또는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이득을 추구하면서 주체성의 확립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인관계 성향은 개개인이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인관계 차원 즉 성향을 제시하는 연구자는 Leary, Schutz, Krech 등으로 대표된다.

Leary의 대인관계 행동차원은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을 비교적 체계있게 발전시킨 대인관계 모형이다. Leary(1957)는 성격자체를 개인에 의해 표현되는 명백한, 의식적인 또는 사적인 대인반응의 다수준적 양식으로 보았다. 즉 수직적 관

계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며, 수평적 관계에서는 증오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대인관계양상은 지배적인 입장에서의 사랑, 복종적인 입장에서의 사랑, 그리고 그 역순의 관계 등을 성립하게 한다. 이러한 차원을 좀 더 세분하면 [그림Ⅱ-1]의 복합적인 관계를 갖는 8차원이 된다.



출처: 안범희 1979, 대인관계의 이론 고찰, p8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Ⅱ-1] Leary의 대인관계행동 8차원

Schutz(1958)는 대인관계에 관한 3차원이론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적 욕구로 인해 대인행동이 설명된다고 하였는데, 이 세 가지 욕구란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연합에 있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속의 욕구 둘째, 통제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의 욕구 셋째, 사랑과 애정에 주목해서 행동적으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정의 욕구이다(남정화, 199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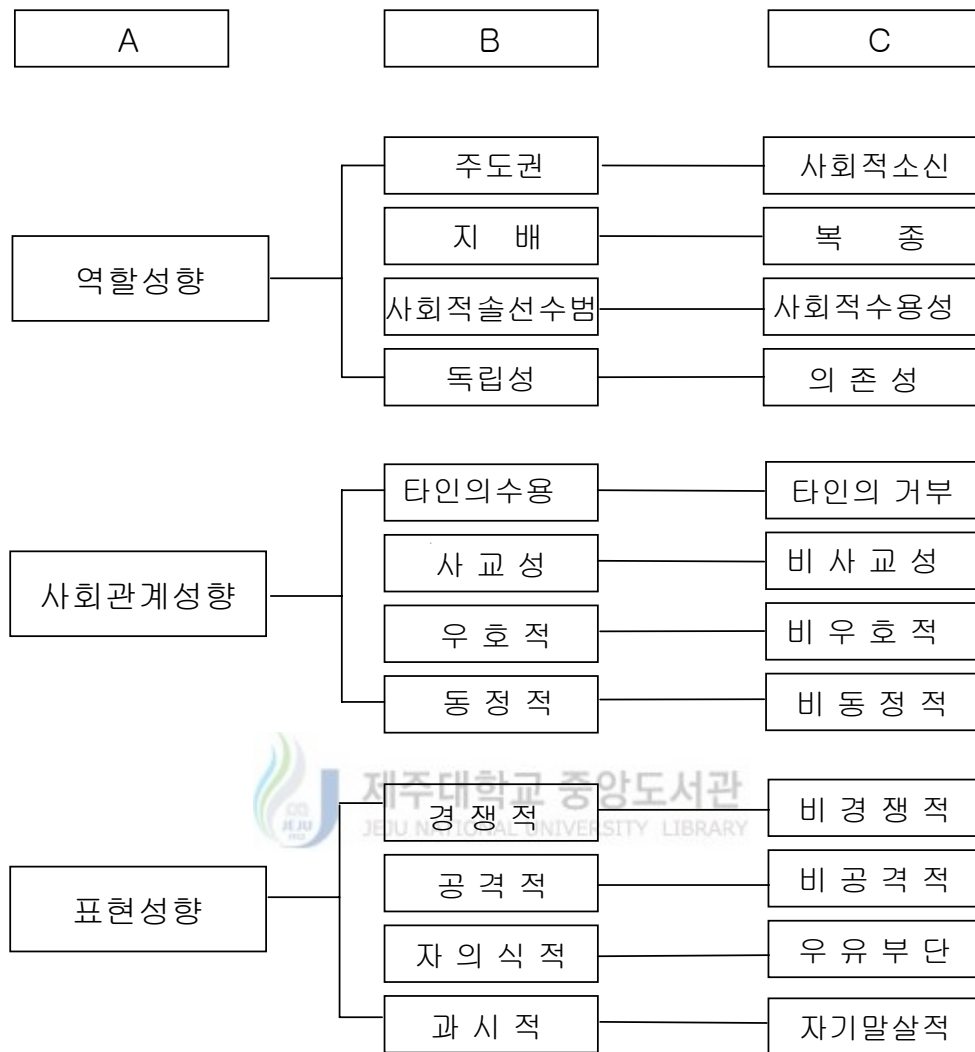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결합함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이며 긍정적인 소속을 뜻하는 말로서 결합, 상호작용, 교제, 의사소통, 속함 등이 있다. 지배의 욕구는 통제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통제를 뜻하는 말

로는 권력, 권위, 지배, 영향력, 지도자 등이 있다. 애정의 욕구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정서적 느낌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사랑과 호의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면을 뜻하는 말로는 사랑, 좋아함, 밀착, 좋은 느낌, 우호 등이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아동기 동안에 어른들(특히 부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은 기본적 대인관계성향(FIRO;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으로 요약되어 칭해지고 있으며, 한 개인이 나타내는 대인행동의 연속성은 그 사람의 최초의 대인관계, 대체로 부모에 대해 경험한 행동과 같은 양식으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Schutz, 1958).

Kretch와 그의 동료는 대인적 반응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역할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적 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것을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primary interpersonal response traits ; PIRT)이라 명명하였다. 각 영역에서 4개의 하위영역을 두고 있다. 역할성향에는 주도권, 지배, 사회적 술선수범, 독립성 영역이 있고 사회관계성향에는 타인의 수용, 사회성, 우호적, 동정적 영역이 있으며, 표현적 성향에는 경쟁적, 공격적, 자의식적, 과시적 영역이 있다.

이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은 [그림 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I-2]의 A 부분은 대인관계성향의 3영역이고, B 부분은 각 영역의 구체적인 하위요인들이며, C 부분은 B의 반대적인 성향을 대칭시켜 놓은 것이다(임동숙, 2000).



출처: Krech, et al, 1962, p. 106

[그림 II-2] Krech의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

안범희(1984)는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들로 대인관계 성향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의 모형은 Krech가 제시한 대인관계 반응의 기본적 특성인 역할 성향과 사회관계 성향과 표현성향을 대인관계 성향의 영



역으로 설정하고, Leary의 모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성향의 요인을 재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Ⅱ-2>와 같다.

<표Ⅱ-2> 대인관계 성향 모형

A	차원	B	C
역할성향	1	지배적	복종적
		우울적	자기비하적
	2	독립적	의존적
		책임감적	무책임적
사회적 관계성향	3	동정적	비동정적
		수용적	거부적
	4	사교적	비사교적
		우호적	비우호적
표현성향	5	경쟁적	비경쟁적
		공격적	비공격적
	6	과시적	자기폐쇄적
		자기도취적	자기의식적
	7	반항적	타협적
		불신적	신뢰적

<표Ⅱ-2>의 대인관계 성향 모형에서 A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맡은 역할, 사회적 관계, 상대방에 취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B의 부분은 각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C의 부분은 B의 반대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B의 정도가 높아지면 C의 정도는 자연 낮아지게 된다. 결국 ‘대인관계 성향 검사’는 B의 요인만으로 구성하게 된다(안범희, 1984). 이 모형은 3 가지 대인관계 영역 안에 7 가지 차원의 대인관계 성향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 별로 상단의 것은 보편성향 하단의 것은 극단성향을 나타낸다(심혜영, 1993).

이상의 대인관계 성향 이론 모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안범희의 대인관계 성향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인관계이론을 가장 활발히 연구한 신프로이드 학파의 영향을 받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대인관계 성향의 각 차원을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한 모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Leary(1955)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환경 중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귀자(1973)는 가정의 환경변인 중 부모-자녀의 애정 및 친밀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이라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존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함을 느껴 친밀한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폐쇄적이고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사교-우호적이며 과시-도취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한광희, 1986).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고 대화시간도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민혜영, 1990 ; 김정선, 1995). 어머니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김정선, 199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도 높아졌다(권혜진, 1992).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중 독립-책임감,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고, 반항-불신적 성향은 낮으며(이문행, 1994), 부모와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 성향이 높은 반면, 개방적인 대화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항성과 불신성 등 부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심혜영, 19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성숙 및 사회적 행동 특성 등과 관련이 있다(김미호, 1989).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아지며(김진희, 1988),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자녀는 자기표현을 많이 했다(권미경, 1983). 특히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성이 높아지고(김양숙, 1995), 가족의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인지가 낮아졌다(김오남, 1994).

김경화(1989)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며, 김윤희(1989)는 자녀의 비행은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 수행과 부모-자녀 간

의 상호관계 및 가족 기능에 의해 희생된 속죄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선  
도,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들이 청  
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1988, 재인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연구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성  
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청소년 성, 출생순위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를 밝히  
기 위한 연구들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지배적-독재적, 협동적-과  
도인습적, 공격적-가대학적 그리고 경쟁적-자기도취적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을 보고하였다(정수자, 1981). 반면에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  
었다(장귀자, 1973). 반항적-불신적 차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정수자,  
1981; 한광희, 1986). 이와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음도 지적하였다(장귀자,  
1973). 그리고 사회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준법성, 자주성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김미호, 1989).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맏이가 과시-자기도취적, 사교-우호적, 반항-불신적인 대  
인관계성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중간이 경쟁-공격적 대인관계성향을, 막내가 지배  
-우월적,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10대 자녀의 형제순위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경우 중간과 장남, 장녀  
가 높고 그 다음이 막내, 외동딸, 외동아들의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장남, 장  
녀, 외동딸, 외동아들과 중간, 막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혜영, 1987).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하여는 옥선화(1985)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  
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대부분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  
녀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키고 자  
녀의 인성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의 실시에 따른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연구 대상 표집은 남·녀 550 명이었다. 회수된 510 부의 질문지 중 한쪽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과 응답이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입되었다고 판단된 것을 제외한 459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성별, 부·모 학력별, 가정분위기별로 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배경변인

n=459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213(46.4)
	여자	246(53.6)
아버지의 학력	초졸	21( 4.6)
	중졸	45( 9.8)
	고졸	222(48.4)
	대졸	140(30.5)
	대학원이상	31( 6.8)
어머니의 학력	초졸	43( 9.4)
	중졸	79(17.2)
	고졸	259(56.4)
	대졸	71(15.5)
	대학원이상	7( 1.5)
가정분위기	매우화목한 편이다.	101(22.0)
	화목한 편이다.	248(54.0)
	그저 그렇다	89(19.4)
	화목하지 않다	14( 3.1)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1.5)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세 가지로,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1)배경변인조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2)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검사,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3)대인관계 성향 검사이다.

### 1) 배경 변인 조사

배경 변인은 조사 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것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것, 가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자녀 자신에 대한 것은 성별을 묻는 문항이며, 부모에 대한 것은 부모의 교육수준을 묻는 문항이며, 가정 전반에 대한 것은 가정 분위기를 묻는 문항으로 총 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검사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Satir의 이론 중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을 주축으로 수정 사용한 김주분(1994)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을 각각 사용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유형은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4가지 유형으로 각각 6 문항씩 총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척도에 의한 점수 배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점, '그저 그렇다' 3 점, '그런 편이다' 4 점, '매우 그렇다' 5 점이다. 위의 항목들에 대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별 신뢰도 계수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의사소통 유형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 항	부의 신뢰도 계수	모의 신뢰도 계수
회유형	1 ~ 6	.56	.64
비난형	7 ~ 12	.89	.87
평가형	13 ~ 18	.83	.83
혼란형	19 ~ 24	.88	.86

### 3) 대인관계 성향 검사

대인관계 성향 검사는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기초로 안범희(1984)가 만든 것으로 특히 Leary의 대인관계 행동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Krech 등이 제시한 대인적 반응 특성 및 Schutz의 기본적 대인관계 성향 모형이 반영되어 있으며 3 개의 주요 영역과 7 차원 14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지는 각 차원당 12 개 문항 씩, 총 84 문항이며 Likert 척도에 의하여 점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채점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 ‘그렇지 않다’는 2 점, ‘그저 그렇다’는 3 점, ‘그런 편이다’는 4 점, ‘매우 그렇다’는 5 점이다. 세 개 영역은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으로 구분되고, 이 중 역할 성향은 다시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2 개 요인으로, 사회관계 성향은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2 개 요인으로, 표현 성향은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3 개 요인으로 나뉘어 진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 및 문항은 <표Ⅲ-3>와 같다.

이 검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최소 .59에서 최소 .79에 걸쳐 나타났다.

<표Ⅲ-3>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문항 구성

영역	요인	문항	신뢰도계수
역할성향	지배-우월적	1,2,15,16,29,30,43,44,57,58,71,72	.65
	독립-책임감적	3,4,17,18,31,32,45,46,59,60,73,74	.59
사회관계 성향	동정-수용적	5,6,19,20,33,34,47,48,61,62,75,76	.75
	사교-우호적	7,8,21,22,35,36,49,50,63,64,77,78	.79
표현성향	경쟁-공격적	9,10,23,24,37,38,51,52,65,66,79,80	.72
	과시-자기도취적	11,12,25,26,39,40,53,54,67,68,81,82	.76
	반항-불신적	13,14,27,28,41,42,55,56,69,70,83,84	.61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유형별 점수에서 하: 33%, 중: 34~66%, 상: 67% 이상으로 나누었으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유의수준은  $p < .01$ ,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간의 차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상관관계, 성별, 학력별,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 1)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 (1)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자기가치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회유형 의사소통에 따라 자녀의 지배-우월적( $F=4.794, p<.01$ ), 독립-책임감적 ( $F=4.755, p<.01$ ), 동정-수용적( $F=3.669, p<.05$ ), 경쟁-공격적( $F=3.194, p<0.5$ ), 과시-자기도취적( $F=3.765, p<.05$ )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회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 $M=32.15$ )보다 보통으로 사용할 때( $M=32.99$ )가 더욱 지배-우월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요인에서도 회유형정도가 중간일 때( $M=35.49$ )가 가장 많이 사용할 때( $M=35.03$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회유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정-수용적(하:  $M=38.16$ , 중:  $M=39.31$ , 상:  $M=39.83$ ), 독립-책임감적(하:  $M=35.18$ , 중:  $M=36.44$ , 상:  $M=36.88$ ), 경쟁-공격적(하:  $M=33.45$ , 중:



M= 34.89, 상: M=35.08)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Ⅳ-1> 아버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아버지 회유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28	183	144	4.794**
	M	31.34	32.99	32.15	
	SD	4.98	4.28	4.81	
독립-책임감적	n	128	183	144	4.755**
	M	35.18	36.44	36.88	
	SD	4.90	4.51	4.77	
동정-수용적	n	128	183	144	3.669*
	M	38.16	39.31	39.83	
	SD	5.42	5.19	5.01	
사교-우호적	n	128	183	144	2.071
	M	38.98	39.92	40.53	
	SD	6.74	5.92	6.28	
경쟁-공격적	n	128	183	144	3.194*
	M	33.45	34.89	35.08	
	SD	5.90	5.35	6.27	
과시-자기도취적	n	128	183	144	3.765*
	M	33.64	35.49	35.03	
	SD	6.10	5.60	6.27	
반항-불신적	n	128	183	144	.254
	M	31.92	32.32	32.22	
	SD	5.40	4.73	4.61	

\* p<.05, \*\* p<.01

(2) 아버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Ⅳ-2>과 같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심판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우 자녀의 지배-우월적(F=11.899, p<.01), 사교-우호적(F=6.173, p<.01), 경쟁-공격적(F=4.900, p<.01), 반항-불신적 (F=13.813, p<.01)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보다 중간정도로 사용할 때 자녀의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은 가장 축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상: M=39.31, 중: M=38.96), 아버지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적게 사용할 때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하: M=41.24).

이것은 아버지가 타인이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상황은 존중하나 상대방은 무시하며 지시적이고 위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 또한 타인에 대하여 지배-우월적이고, 경쟁-공격적이며,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비난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표Ⅳ-2> 아버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아버지비난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64	157	137	11.899**
	M	30.88	32.70	33.34	
	SD	5.00	4.28	4.38	
독립-책임감적	n	164	157	137	.215
	M	36.13	36.11	36.44	
	SD	4.91	4.95	4.27	
동정-수용적	n	164	157	137	2.876
	M	39.80	38.41	39.28	
	SD	4.97	5.22	5.47	
사교-우호적	n	164	157	137	6.173**
	M	41.24	38.96	39.31	
	SD	5.83	5.85	7.05	
경쟁-공격적	n	164	157	137	4.900**
	M	33.46	34.79	35.50	
	SD	5.70	5.85	5.78	
과시-자기도취적	n	164	157	137	1.267
	M	34.29	34.90	35.39	
	SD	6.11	5.76	6.06	
반항-불신적	n	164	157	137	13.813**
	M	30.63	32.73	33.33	
	SD	4.57	4.52	5.16	

\*\* p<.01

(3) 아버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Ⅳ-3>에 나타내었다. 자녀의 지배-우월적(F=7.899, p<.01), 사교-우호적(F=5.655, p<.01), 경쟁-공격적(F=3.857, p<.05), 반항-불신적(F=12.530, p<.01) 대인관계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가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가 지배-우월적인 관계성향을 가지며 경쟁-공격적이 되고 또한 타인을 믿지 못하는 반항-불신적인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가 평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자녀의 사교-우호적인 성향은 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표Ⅳ-3> 아버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아버지 평가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43	155	160	7.899**
	M	31.06	32.37	33.16	
	SD	5.04	4.21	4.61	
독립-책임감적	n	143	155	160	.550
	M	35.92	36.21	36.49	
	SD	5.16	4.23	4.80	
동정-수용적	n	143	155	160	.954
	M	39.62	38.79	39.13	
	SD	4.70	5.11	5.77	
사교-우호적	n	143	155	160	5.655**
	M	41.34	39.25	39.20	
	SD	5.60	6.26	6.72	
경쟁-공격적	n	143	155	160	3.857*
	M	33.44	34.82	35.22	
	SD	5.81	5.66	5.89	
과시-자기도취적	n	143	155	160	1.021
	M	34.24	35.05	35.14	
	SD	5.82	5.78	6.30	
반항-불신적	n	143	155	160	12.530**
	M	30.68	32.23	33.41	
	SD	4.73	4.23	5.22	

\* p<.05, \*\* p<.01

**(4) 아버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자녀의 지배-우월적 (F=5.850, p<.01), 사교-우호적(F=5.875, p<.01), 반항-불신적 (F=11.003, p<.01)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비합리적이며 잘 모르면서 말하는 혼란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자녀가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지며, 이에 반하여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의 성장은 방해받게 된다.

**<표IV-4> 아버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아버지 혼란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39	159	160	5.850**
	M	31.28	32.19	33.12	
	SD	5.28	4.17	4.49	
독립-책임감적	n	139	159	160	.047
	M	36.12	36.28	36.24	
	SD	5.01	4.61	4.62	
동정-수용적	n	139	159	160	2.556
	M	39.94	39.09	38.57	
	SD	4.71	5.47	5.36	
사교-우호적	n	139	159	160	5.875**
	M	41.15	39.98	38.68	
	SD	6.00	5.94	6.69	
경쟁-공격적	n	139	159	160	.408
	M	34.20	34.53	34.81	
	SD	6.68	5.27	5.57	
과시-자기도취적	n	139	159	160	.018
	M	34.87	34.75	34.86	
	SD	6.82	5.30	5.88	
반항-불신적	n	139	159	160	11.003**
	M	30.84	32.04	33.42	
	SD	5.08	4.36	4.87	

\*\* p<.01

##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 (1) 어머니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Ⅳ-5>에 나타내었다. 어머니 회유형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가 독립-책임감적( $F=4.924$ ,  $p<.01$ ), 동정-수용적( $F=5.605$ ,  $p<.01$ ), 경쟁-공격적( $F=5.878$ ,  $p<.01$ ), 과시-자기도취적( $F=4.958$ ,  $p<.01$ )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 회유형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독립적이고 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의 조장을 촉진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녀의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 성향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어머니의 회유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양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5> 어머니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분석

하위변인	구분	어머니 회유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76	143	139	4.137
	M	31.45	32.63	32.83	
	SD	4.92	4.14	4.81	
독립-책임감적	n	176	143	139	4.924**
	M	35.35	36.71	36.81	
	SD	4.68	4.47	4.92	
동정-수용적	n	176	143	139	5.605**
	M	38.28	39.22	40.24	
	SD	5.49	4.71	5.23	
사교-우호적	n	176	143	139	1.856
	M	39.39	39.68	40.72	
	SD	6.00	6.10	6.81	
경쟁-공격적	n	176	143	139	5.878**
	M	33.39	34.99	35.50	
	SD	5.51	5.41	6.40	
과시-자기도취적	n	176	143	139	4.958**
	M	33.80	35.06	35.88	
	SD	5.83	5.76	6.22	
반항-불신적	n	176	143	139	1.200
	M	31.74	32.58	32.25	
	SD	4.50	4.83	5.34	

\*\* p<.01

(2)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Ⅳ-6>과 같다. 어머니가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지배-우월적(F=10.221, p<.01), 경쟁-공격적(F=3.044, p<.05), 반항-불신적(F=14.757, p<.01) 대인관계 성향은 조장되고, 자녀의 사교-우호적(F=5.538, p<.01) 대인관계 성향의 성숙은 방해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Ⅳ-6>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어머니 비난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48	161	149	10.221**
	M	30.97	32.35	33.38	
	SD	5.42	4.27	4.01	
독립-책임감적	n	148	161	149	2.208
	M	35.74	36.83	36.03	
	SD	4.90	4.65	4.61	
동정-수용적	n	148	161	149	2.032
	M	39.87	38.75	38.93	
	SD	5.41	4.98	5.28	
사교-우호적	n	148	161	149	5.538**
	M	41.26	39.45	38.98	
	SD	6.61	6.18	5.91	
경쟁-공격적	n	148	161	149	3.044*
	M	33.56	34.98	35.01	
	SD	6.34	5.68	5.35	
과시-자기도취적	n	148	161	149	.615
	M	34.51	34.73	35.26	
	SD	6.86	5.77	5.24	
반항-불신적	n	148	161	149	14.757**
	M	30.44	32.78	33.19	
	SD	5.02	4.62	4.54	

\* p<.05, \*\* p<.01

### (3) 어머니의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Ⅳ-7>에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평가형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지배-우월적(F=6.027, p<.01), 반항-불신적(F=16.529, p<.01)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가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 및 타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평가적 측면에만 치우쳐서 의사소통을 의존할 경우에 자녀는 타인에 대하여 반항-불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우월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지니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7> 어머니의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어머니 평가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40	166	152	6.027**
	M	31.23	32.30	33.11	
	SD	5.48	4.24	4.19	
독립-책임감적	n	140	166	152	.213
	M	36.30	36.33	36.29	
	SD	4.67	4.86	4.67	
동정-수용적	n	140	166	152	.383
	M	39.43	39.20	38.89	
	SD	5.10	5.05	5.55	
사교-우호적	n	140	166	152	2.829
	M	40.72	39.99	38.99	
	SD	6.33	6.45	6.02	
경쟁-공격적	n	140	166	152	1.345
	M	33.86	34.80	34.86	
	SD	5.12	34.86	5.35	
과시-자기도취적	n	140	166	152	.175
	M	34.59	34.98	34.88	
	SD	6.57	5.58	5.87	
반항-불신적	n	140	166	152	16.529**
	M	30.41	32.36	33.56	
	SD	4.90	4.65	4.60	

\*\* p<.01

(4) 어머니의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분석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 IV-8>에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상황과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그룹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지배-우월적(F=9.677, p<.01), 반항-불신적(F=14.989, p<.01) 대인관계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사교-우호적(F=7.825, p<.01) 대인관계 성향은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어머니의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표IV-8> 어머니의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구분	어머니 혼란형			F
		하	중	상	
지배-우월적	n	151	184	123	9.677**
	M	31.01	32.45	33.43	
	SD	5.32	4.13	4.31	
독립-책임감적	n	151	184	123	.494
	M	35.94	36.46	36.20	
	SD	5.20	4.57	4.38	
동정-수용적	n	151	184	123	2.710
	M	39.97	38.72	38.85	
	SD	5.25	5.19	5.20	
사교-우호적	n	151	184	123	7.825**
	M	41.42	39.52	38.54	
	SD	6.46	6.02	6.15	
경쟁-공격적	n	151	184	123	1.826
	M	33.79	34.89	34.90	
	SD	6.39	5.49	5.54	
과시-자기도취적	n	151	184	123	.285
	M	34.53	34.94	35.02	
	SD	6.89	5.58	5.37	
반항-불신적	n	151	184	123	14.989**
	M	30.83	32.04	33.97	
	SD	4.94	4.36	4.98	

\*\* p<.01

## 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IV-9>와 <표IV-10>에 나타내었다.

## 1)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IV-9>에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은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r=.146, p<.01$ ), 동정-수용적( $r=.142, p<.01$ ), 사교-우호적( $r=.117, p<.05$ ), 과시-자기도취적( $r=.109, p<.05$ ), 경쟁-공격적( $r=.098, p<.05$ ) 대인관계 성향과는 비교적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회유형의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책임감적, 수용적, 우호적, 자기도취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형은 자녀의 지배-우월적( $r=.206, p<.01$ ), 반항-불신적( $r=.203, p<.01$ ), 경쟁-공격적( $r=.102, p<.05$ )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교-우호적( $r=-.111, p<.05$ ) 하위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비난형인 경우 자녀의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성향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비난형의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 경우 자녀는 사교-우호적이지 못하고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이고 경쟁-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중 평가형은 반항-불신적( $r=.247, p<.01$ ), 지배-우월적( $r=.230, p<.01$ ), 경쟁-공격적( $r=.137, p<.01$ ), 과시-자기도취적( $r=.095, p<.05$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혼란형은 반항-불신적( $r=.231, p<.01$ ) 및 지배-우월적( $r=.182, p<.01$ )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사교-우호적( $r=-.141, p<.01$ ), 동정-수용적( $r=-.099, p<.05$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IV-9>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하위 영역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역할성향	지배-우월적	.062	.206**	.230**	.182**
	독립-책임감적	.146**	-.006	.049	.021
사회관계성향	동정-수용적	.142**	-.074	-.007	-.099*
	사교-우호적	.117*	-.111*	-.080	-.141**
표현성향	경쟁-공격적	.098*	.102*	.137**	.085
	과시-자기도취적	.109*	.056	.095*	.018
	반항-불신적	.011	.203**	.247**	.231**

\*  $p<.05$ , \*\*  $p<.01$

## 2)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IV-10>에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은 자녀의 동정-수용적( $r=.177, p<.01$ ), 과시-자기도취적( $r=.153, p<.01$ ), 경쟁-공격적( $r=.152, p<.01$ ), 독립-책임감적( $r=.125, p<.01$ ), 지배-우월적( $r=.112, p<.05$ ) 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일 때와 다른 점은 지배-우월적 성향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난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r=.245, p<.01$ ) 요인과 지배-우월적( $r=.209, p<.01$ ) 요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교-우호적( $r=-.178, p<.01$ ), 동정-수용적( $r=-.092, p<.05$ )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평가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r=.297, p<.01$ ) 요인과 지배-우월적( $r=.190, p<.01$ )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사교-우호적( $r=-.143, p<.01$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평가적 의사소통을 할 수록 자녀가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사교적이지 못한 대인관계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어머니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반항-불신적( $r=.297, p<.01$ ), 지배-우월적( $r=.226, p<.01$ ) 및 경쟁-공격적( $r=.100, p<.05$ )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사교-우호적( $r=-.152, p<.01$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IV-10>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하위영역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역할성향	지배-우월적	.112*	.209**	.190**	.226**
	독립-책임감적	.125**	.003	.023	.034
사회관계성향	동정-수용적	.177**	-.092*	-.091	-.077
	사교-우호적	.075	-.178**	-.143**	-.152**
표현성향	경쟁-공격적	.152**	.081	.084	.100*
	과시-자기도취적	.153**	.029	.004	.052
	반항-불신적	.047	.245**	.297**	.297**

\*  $p<.05$ , \*\*  $p<.01$

### 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 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여 <표IV-11>에 제시하였다.

<표IV-11>와 같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중에서 지배-우월적인 요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평가형( $t=2.250, p<.05$ )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회유형( $t=3.531, p<.01$ ), 평가형( $t=1.986, p<.05$ )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동정-수용적 대인관계 성향을 가장 잘 예측해 주고 있는 변인은 회유형( $t=2.789, p<.01$ )과 평가형( $t=2.509, p<.05$ )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적 요인에는 혼란형( $t=-2.124, p<.05$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쟁-공격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유형( $t=3.501, p<.01$ )과 평가형( $t=2.031, p<.05$ )으로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에는 회유형( $t=3.285, p<.01$ )과 평가형( $t=2.139, p<.05$ )이 있었으며, 자녀의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평가형( $t=2.614, p<.01$ ), 회유형( $t=2.508, p<.05$ ), 혼란형( $t=2.344, p<.05$ )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경쟁-공격적, 과시-주도적, 동정-수용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동정-수용적,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교-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인 경우는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대인관계성향	예측변인	B	β	t	F	ΔR <sup>2</sup>
지배 - 우월적	회유형	.279	.187	3.767	10.399**	.084
	비난형	.104	.113	1.424		
	평가형	.173	.172	2.250*		
	혼란형	.60	.058	.991		
독립 - 책임감적	회유형	.272	.180	3.531**	4.030**	.035
	비난형	-0.57	-.061	-.748		
	평가형	.158	.156	1.986*		
	혼란형	0.013	.012	.203		
동정 - 수용적	회유형	.236	.142	2.789**	4.496**	.038
	비난형	-.099	-.098	-1.197		
	평가형	.220	.196	2.509*		
	혼란형	-.136	-.117	-1.954		
사교 - 우호적	회유형	.175	.088	1.709	3.323*	.029
	비난형	-.071	-.058	-.712		
	평가형	.107	.079	1.007		
	혼란형	-.178	-.128	-2.124*		
경쟁 - 공격적	회유형	.330	.178	3.501**	5.241**	.044
	비난형	.057	.050	.619		
	평가형	-.198	.158	2.031*		
	혼란형	.005	.004	.067		
과시- 자기도취적	회유형	.319	.168	3.285**	4.117**	.035
	비난형	.036	.031	.378		
	평가형	.215	.167	2.139*		
	혼란형	-.077	-.058	-.963		
반항 - 불신적	회유형	.194	.125	2.508*	10.397**	.085
	비난형	.014	.015	.190		
	평가형	.209	.198	2.614**		
	혼란형	.148	.137	2.344*		

\* p<.05, \*\* p<.01

## 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여 <표IV-12>에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와 같이 자녀의 지배-우월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변인은 회유형( $t=3.664$ ,  $p<.01$ )과 혼란형( $t=2.521$ ,  $p<.05$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대인관계 성향을 가장 잘 예언해 주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회유형( $t=2.813$ ,  $p<.01$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동정-수용적 대인관계 성향을 예언해 주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으로도 회유형( $t=3.463$ ,  $p<.01$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변인은 회유형( $t=3.458$ ,  $p<.01$ )이 나타났다.

반항-불신적 성향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은 혼란형( $t=3.259$ ,  $p<.01$ ), 평가형( $t=2.986$ ,  $p<.01$ ), 회유형( $t=2.577$ ,  $p<.05$ )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회유형 의사소통방식은 자녀의 지배-우월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독립-책임감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인 경우는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평가형 의사소통방식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혼란형 의사소통방식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어머니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분석

대인관계성향	예측변인	B	$\beta$	t	F	$\Delta R^2$
지배 - 우월적	회유형	.230	.171	3.664**	10.919**	.088
	비난형	.159	.145	1.879		
	평가형	.034	.032	.410		
	혼란형	.157	.143	2.521*		
독립 - 책임감적	회유형	.185	.136	2.813**	2.218	.019
	비난형	-.031	-.028	-.349		
	평가형	.067	.062	.771		
	혼란형	.030	.027	.455		
동정 - 수용적	회유형	.249	.166	3.463**	4.157**	.035
	비난형	-.016	-.013	-.169		
	평가형	-.017	-.014	-.178		
	혼란형	-.055	-.045	-.765		
사교 - 우호적	회유형	.068	.037	.782	4.374**	.037
	비난형	-.218	-.148	-1.865		
	평가형	.047	.033	.411		
	혼란형	-.124	-.084	-1.437		
경쟁 - 공격적	회유형	.308	.184	3.852	5.032**	.042
	비난형	.070	.051	.651		
	평가형	.070	.053	.664		
	혼란형	.081	.059	1.014		
과시 - 자기도취적	회유형	.286	.166	3.458**	3.531**	.030
	비난형	.113	.081	1.018		
	평가형	-.069	-.051	-.633		
	혼란형	.074	.053	.901		
반항 - 불신적	회유형	.165	.118	2.577*	16.071**	.124
	비난형	-.014	-.012	-.158		
	평가형	.251	.227	2.986**		
	혼란형	.209	.182	3.259**		

\* p<.05, \*\* p<.01

#### 4. 성별, 부모의 학력별, 가정분위기별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검증

##### 1)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남·녀 성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IV-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점 중에서는 과시-자기도취적(-4.215,  $p<.01$ )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었고, 여학생의 평균이 35.89로 남학생의 평균인 33.5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성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한광희, 1986; 이문행, 1994; 주소영, 1994)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역량을 높게 지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과시-자기도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경쟁-공격적, 반항-불신적 하위요인에서는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13>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변인	성별	n	M	SD	t
지배-우월적(역할성향)	남	213	32.00	4.77	-1.068
	녀	246	32.46	4.61	
독립-책임감적(역할성향)	남	213	35.77	4.99	-1.856
	녀	246	36.59	4.47	
동정-수용적(사회관계성향)	남	213	38.72	5.19	-1.718
	녀	246	39.56	5.24	
사교-우호적(사회관계성향)	남	213	39.64	6.20	-.744
	녀	246	40.08	6.38	
경쟁-공격적(표현성향)	남	213	34.63	6.01	.402
	녀	246	34.41	5.67	
과시-자기도취적(표현성향)	남	213	33.57	6.10	-4.215**
	녀	246	35.89	5.68	
반항-불신적(표현성향)	남	212	32.26	5.08	.427
	녀	246	32.07	4.69	

\*\*  $p<.01$



## 2)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Ⅳ-1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대인관계 성향의 전 하위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Ⅳ-14>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아버지학력	n	M	SD	F
지배-우월적(역할성향)	초졸	21	33.14	5.39	1.050
	중졸	45	31.80	5.01	
	고졸	222	32.10	4.35	
	대졸	139	32.15	5.01	
	대학원 이상	31	33.65	4.54	
독립-책임감적(역할성향)	초졸	21	36.52	6.00	.691
	중졸	45	37.24	4.54	
	고졸	222	36.02	4.53	
	대졸	139	36.23	4.90	
	대학원 이상	31	35.87	4.78	
동정-수용적(사회관계성향)	초졸	21	38.14	5.11	.262
	중졸	45	39.11	5.25	
	고졸	222	39.16	5.29	
	대졸	139	39.27	5.17	
	대학원 이상	31	39.58	5.42	
사교-우호적(사회관계성향)	초졸	21	40.05	5.24	.383
	중졸	45	40.24	6.17	
	고졸	222	39.59	6.26	
	대졸	139	40.32	6.68	
	대학원 이상	31	39.35	5.82	
경쟁-공격적(표현성향)	초졸	21	35.67	6.02	1.222
	중졸	45	33.38	4.70	
	고졸	222	34.52	5.85	
	대졸	139	34.40	6.07	
	대학원 이상	31	36.10	5.82	
과시-자기도취적(표현성향)	초졸	21	33.38	4.66	.907
	중졸	45	34.47	5.34	
	고졸	222	34.57	5.89	
	대졸	139	35.37	6.55	
	대학원 이상	31	35.71	5.64	
반항-불신적(표현성향)	초졸	21	32.67	5.66	.354
	중졸	45	32.44	4.69	
	고졸	222	32.11	4.90	
	대졸	139	31.91	4.38	
	대학원 이상	31	32.87	6.44	

###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F 검증을 실

시하고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성향의 전 하위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IV-15>와 같다.

<표IV-15>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어머니학력	n	M	SD	F
지배-우월적(역할성향)	초졸	43	31.79	4.82	.458
	중졸	79	32.56	4.67	
	고졸	258	32.10	4.50	
	대졸	71	32.37	5.17	
	대학원 이상	7	35.14	5.90	
독립-책임감적(역할성향)	초졸	43	36.72	5.22	1.836
	중졸	79	36.56	4.30	
	고졸	258	35.84	4.57	
	대졸	71	36.52	5.30	
	대학원 이상	7	40.00	4.86	
동정-수용적(사회관계성향)	초졸	43	38.44	5.26	.898
	중졸	79	39.63	5.19	
	고졸	258	39.07	5.09	
	대졸	71	39.17	5.94	
	대학원 이상	7	42.00	2.16	
사교-우호적(사회관계성향)	초졸	43	39.21	5.53	.769
	중졸	79	40.89	5.67	
	고졸	258	39.82	6.64	
	대졸	71	39.35	6.17	
	대학원 이상	7	40.43	5.91	
경쟁-공격적(표현성향)	초졸	43	34.21	5.94	1.309
	중졸	79	34.97	5.31	
	고졸	258	34.28	5.81	
	대졸	71	34.68	6.15	
	대학원 이상	7	39.00	7.35	
과시-자기도취적(표현성향)	초졸	43	33.37	5.55	1.864
	중졸	79	35.35	5.09	
	고졸	258	34.84	6.33	
	대졸	71	34.61	5.62	
	대학원 이상	7	39.43	6.63	
반항-불신적(표현성향)	초졸	43	32.12	5.00	1.675
	중졸	79	32.46	5.07	
	고졸	258	31.86	4.81	
	대졸	71	32.52	4.44	
	대학원 이상	7	36.29	7.23	

#### 4)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F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IV-16>과 같다.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검증 결과, 사교-우호적 사회관계성향 요인( $F=2.607, P<.05$ ), 과시-자기도취적 표현성향 요인( $F=3.166, P<.05$ ), 반항-불신적 표현성향 요인( $F=2.767,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교-우호적인 사회관계성향 요인에서는 가정분위기가 ‘매우화목한 편이다’의 경우 평균이 40.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화목한 가정분위기가 자녀의 사교-우호적인 사회관계성향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시-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서는 화목한 가정의 자녀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M=35.38$ ) ‘매우 화목하지 않다( $M=29.14$ )’의 항목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반목하는 가정분위기에서의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와 표현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에서는 ‘화목하지 않다( $M=35.08$ )’, ‘매우 화목하지 않다( $M=33.29$ )’가 높게 나타나 자녀의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이 화목하지 않고 위협적인 가정환경에 의하여 조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IV-16>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많은 가정의 자녀는 화목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사교-우호적이지 못하고 표현성향에서도 주도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는 화목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반항-불신적인 태도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 성향 중 부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즉 가정의 화목한 정도는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V-16> 가정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가정분위기	n	M	SD	F
지배-우월적(역할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1.84	5.15	.531
	화목한 편이다	248	32.42	4.68	
	그저 그렇다	89	32.03	4.20	
	화목하지 않다	13	33.46	4.75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2.14	4.22	
독립-책임감적(역할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6.08	5.34	.667
	화목한 편이다	248	36.08	4.75	
	그저 그렇다	89	36.66	3.97	
	화목하지 않다	13	37.54	5.27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4.86	2.41	
동정-수용적(사회관계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9.39	5.15	2.077
	화목한 편이다	248	39.38	5.19	
	그저 그렇다	89	38.10	5.10	
	화목하지 않다	13	41.69	5.69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7.29	7.16	
사교-우호적(사회관계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40.66	6.94	2.607*
	화목한 편이다	248	40.29	6.08	
	그저 그렇다	89	38.15	5.69	
	화목하지 않다	13	38.62	7.60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8.43	6.13	
경쟁-공격적(표현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4.11	6.22	.471
	화목한 편이다	248	34.52	5.85	
	그저 그렇다	89	34.71	5.44	
	화목하지 않다	13	35.92	5.27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6.14	5.79	
과시-자기도취적(표현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4.93	6.71	3.166*
	화목한 편이다	248	35.38	5.78	
	그저 그렇다	89	33.57	5.34	
	화목하지 않다	13	35.08	6.29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29.14	5.37	
반항-불신적(표현성향)	매우 화목한 편이다	101	32.04	5.29	2.767*
	화목한 편이다	248	31.68	4.55	
	그저 그렇다	89	33.11	4.83	
	화목하지 않다	13	35.08	6.38	
	매우 화목하지 않다	7	33.29	4.64	

\* P<.05

##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간 작용하는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 요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문제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문제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문제4.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 가설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대인관계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 550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하고 그 중 459 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3 가지로,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1) 배경변인조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2) 의사소통 유형 검사,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3) 대인관계 성향 검사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WIN을 이용하여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부모의 학력별, 가정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별 정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4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보면, 먼저 아버지가 회유형일 때 지배-우월적( $F=4.794, p<.01$ ), 독립-책임감적( $F=4.755, p<.01$ ), 과시-자기도취적( $F=3.765, P<.05$ ), 동정-수용적( $F=3.669, P<.01$ ), 경쟁-공격적( $F=3.194, p<.05$ )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때 반항-불신적( $F=13.813, p<.01$ ), 지배-우월적( $F=11.899, p<.01$ ), 사교-우호적( $F=6.173, p<.01$ ), 경쟁-공격적( $F=4.900, p<.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가 타인이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상황은 존중하나 상대방은 무시하며 지시적이고 위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면 자녀 또한 타인에 대하여 우월적이고, 경쟁적이며, 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가 비난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

는 그룹일수록 자녀의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비난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아버지가 평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의 지배-우월적(F=7.899,  $p<.01$ ), 사교-우호적(F=5.655,  $p<.01$ ), 경쟁-공격적(F=3.857,  $p<.05$ ), 반항-불신적(F=12.530,  $p<.01$ ) 대인관계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가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할수록, 자녀가 지배-우월적인 관계성향을 가지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이 되고 또한 타인을 믿지 못하고 불신적인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가 평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자녀의 사교-우호적인 성향은 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혼란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의 지배-우월적(F=5.850,  $p<.01$ ), 사교-우호적인(F=5.875,  $p<.01$ ), 반항-불신적(F=11.003,  $p<.01$ )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비합리적이며 잘 모르면서 말하는 혼란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자녀가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지며, 이에 반하여 사교-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의 성장은 방해받게 된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보면 먼저 어머니가 회유형일 때 독립-책임감적(F=4.924,  $p<.01$ ), 동정-수용적(F=5.605,  $p<.01$ ), 경쟁-공격적(F=5.878,  $p<.01$ ), 과시-자기도취적 (F=4.958,  $p<.01$ )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 회유형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독립적이고 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의 조장을 촉진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녀의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 성향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어머니의 회유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양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때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보면 자녀의 지배-우월적(F=10.221,  $p<.01$ ), 경쟁-공격적(F=3.044,  $p<.05$ ), 반항-불신적(F=14.757,  $p<.01$ ) 대인관계 성향은 조장되고, 자녀의 사교-우호적(F=5.538,  $p<.01$ )인 대인관계 성향의 성숙은 방해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때 자녀의 지배-우월적(F=6.027,



$p < .01$ ), 반항-불신적 ( $F=16.529$ ,  $p < .01$ ) 대인관계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 및 타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평가적 측면에만 치우쳐서 의사소통을 의존할 경우에 자녀는 타인에 대하여 불신적이고, 반항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적, 우월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지니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가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는 상대적으로 지배-우월적( $F=9.677$ ,  $p < .01$ ), 반항-불신적( $14.989$ ,  $p < .01$ ) 대인관계 성향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하위영역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첫째,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은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r=.146$ ,  $p < .01$ ), 동정-수용적( $r=.142$ ,  $p < .01$ ), 사교-우호적( $r=.117$ ,  $p < .05$ ), 과시-자기도취적( $r=.109$ ,  $p < .05$ ), 경쟁-공격적( $r=.098$ ,  $p < .05$ ) 대인관계 성향과는 비교적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회유형의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수용적, 우호적, 자기도취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형은 자녀의 지배-우월적( $r=.206$ ,  $p < .01$ ), 반항-불신적( $r=.203$ ,  $p < .01$ ), 경쟁-공격적( $r=.102$ ,  $p < .05$ )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교-우호적( $r=-.111$ ,  $p < .05$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비난형인 경우 자녀의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성향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비난형의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 경우 자녀는 사교-우호적이지 못하고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이고 경쟁-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중 평가형은 반항-불신적( $r=.247$ ,  $p < .01$ ), 지배-우월적( $r=.230$ ,  $p < .01$ ), 경쟁-공격적( $r=.137$ ,  $p < .01$ ), 과시-자기도취적( $r=.095$ ,  $p < .05$ )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평가적인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관계성향의 촉진에는 부정적인 영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혼란형은 반항-불신적( $r=.231$ ,  $p < .01$ ), 지배-우월적( $r=.182$ ,  $p < .01$ ) 요인과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사교-우호적( $r=-.141, p<.01$ ), 동정-수용적( $r=-.099, p<.05$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은 자녀의 동정-수용적( $r=.177, p<.01$ ), 과시-자기도취적( $r=.153, p<.01$ ), 경쟁-공격적( $r=.152, p<.01$ ), 지배-우월적( $r=.112, p<.05$ )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비난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r=.245, p<.01$ ) 요인과 지배-우월적 ( $r=.209, p<.01$ ) 요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동정-수용적( $r=-.178, p<.01$ )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평가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r=.297, p<.01$ ), 지배-우월적( $r=.190, p<.01$ )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어머니가 평가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지배-우월적이고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어머니 혼란형은 반항-불신적( $r=.297, p<.01$ ) 및 지배-우월적( $r=.226, p<.01$ ) 요인, 경쟁-공격적 ( $r=.100, p<.05$ ) 요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사교-우호적( $r=-.152, p<.01$ )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3)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첫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지배-우월적인 성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유형은 평가형( $t=2.250, p<.05$ )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책임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유형은 회유형( $t=3.531, p<.01$ ), 평가형( $t=1.986, p<.05$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정-수용적 성향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은 회유형( $t=2.789, p<.01$ )과 평가형( $t=2.509, p<.05$ )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적 성향은 혼란형( $t=-2.124, p<.05$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공격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유형( $t=3.501, p<.01$ ), 평가형( $t=2.031, p<.05$ )으로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에는 회유형( $t=3.285, p<.01$ ), 평가형( $t=2.139, p<.05$ )으로 나타났으며, 반항-불신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평가형( $t=2.614, p<.01$ ), 회유형( $t=2.508, p<.05$ ), 혼란형( $t=2.344, p<.05$ )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지배-우월적인 성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유형은 회유형( $t=3.664, p<.01$ ), 혼란형( $t=2.521, p<.05$ )이었고, 독립-책임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유형은 회유형( $t=2.813, p<.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정-수용적 성향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은 회유형( $t=3.463, p<.01$ )이었다.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는 회유형( $t=3.458, p<.01$ )으로 나타났고, 반항-불신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란형( $t=3.259, p<.01$ ), 평가형( $t=2.986, p<.01$ ), 회유형( $t=2.577, p<.05$ )의 순서로 나타났다.

#### 4)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첫째, 성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가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과시-자기도취적( $-4.215, p<.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정의 분위기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면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한 편이다’( $M=40.66$ ), ‘화목한 편이다’( $M=40.29$ )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교-우호적( $F=2.607, p<.05$ )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과시-자기도취적( $F=3.166, p<.05$ ) 요인에서는 ‘화목한 편이다’( $M=35.38$ ), ‘매우 화목한 편이다’( $M=34.93$ )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항-불신적 요인에서는 ‘화목하지 않다’( $M=35.08$ ), ‘매우 화목하지 않다’( $M=33.29$ )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자녀가 사교-우호적 및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내고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경쟁-공격적, 반항-불신적 성향을 나타내어 가정의 불화가 중요한 부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의 화목도가 자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은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 가정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은 대인관계 성향이 점차 부정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이는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현장에서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도를 높이는 것은 학교 내의 여러 요인을 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밝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남의 기분을 존중하고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고 지나치게 겸손하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의사소통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며, 타인을 무시하며, 완고하고, 독선적이며,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의사소통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아버지가 분석적이고 비판하며 따지는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없이 산만한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이며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어머니가 남의 기분을 존중하고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고 지나치게 겸손하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며, 타인을 무시하며, 완고하고, 독선적이며,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의사소통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반항-불신적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어머니가 분석적이고 비판하며 따지는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이 강하고,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없이 산만한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며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둘째, 아버지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일 경우 자녀는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비난형 의사소통유형

일 경우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된다. 아버지가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고,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어머니가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일 경우 자녀는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독립-책임감적, 지배-우월적 성향을 보이고, 비난형일 경우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된다. 어머니가 평가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성향을 보이고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되며, 혼란형일 때 자녀는 반항-불신적,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성향 및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을 갖는다.

셋째,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독립-책임감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동정-수용적, 반항-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동정-수용적,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가 반항-불신적 성향과 사교-우호적이지 못한 성향이 되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지배-우월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독립-책임감적, 반항-불신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형은 자녀가 반항-불신적 성향 되도록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반항-불신적 성향과 지배-우월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여자가 남자보다 사교-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이다. 가정이 화목할수록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을 갖고, 화목하지 않을 때 반항-불신적 성향을 갖는다.

이상의 결론은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3. 제언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부모에게만 필요한 대화기법만이 아니고, 학교 전반에서 종사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가정의 화목도를 높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학교 내의 여러 요인을 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데에도 크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 측정과 함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문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역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시킴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미래 부모역할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주도 내의 대학생들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 문제를 재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명호(1996). 가정환경과 성격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영복(1977). 「현대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권석만(1995). 우울과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미경(198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보연(1999).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희(2005).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겸(2002).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태(1985). 발달심리학. 서울 : 범문사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 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진희(1988). **부모- 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 대학원.
- 남정화(1998). **형제 자매관계의 특징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민혜영(199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순정(1996). **자아개념이 대인관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연호(1999).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방문희(1991).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방정복(1980). **대화와 인간관계**. 서울 : 아세아문화사
- 서수진(2002). **청소년 댄스스포츠 참가와 대인관계 성향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상홍(2004).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 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송여옥(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승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신수진(200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혜영(1993). **고교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범희(1979). **대인관계의 이론 고찰, 「원우론집」, 제7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 \_\_\_\_\_(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오선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옥선화. (1985). **자녀문제와 대책-청소년과 부모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부인회
- 유영주(1998). **신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문행(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숙(2002). **가족기능성이 청소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형득(200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학지사
- 이혜강(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동숙(2000). **중학생과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점숙(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성향**.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귀자(1973). **가정환경변인과 대인행동유형간의 상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수자(1981). **청소년기의 대인행동에 미치는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

- 회지, 제47 호, 서울: 대한가정학회, pp.85~96.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주소영(1995). *고교생이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용근(1996). *인간관계훈련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인경(2001).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경옥(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Balswick, J.(1978). *I want to say I love you*, Texas: Waco Inc. p.78.
- Barnes,H. &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ienvenu, M.J. & McClain, S.(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Loss*. New York: Basic Books.
- Cooley, C. H.(1916).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 Foly, V.D.(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Grune & Stratton, Inc. p.81.
- Froma Walsh.(1983). *Family Therapy A systematic Orientation*.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Gordon, T(1974).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Y: New American Library, p.41
-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5th, ed.). N.J.: Prentice-hall, p.219
- Heider, 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John Wiley&Sons, Inc.
- Hovland,(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Y.:Yale University Press, p12
- Krech, D.(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Inc.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Y.: The Ronald Press Co. p.4
- Leary, T & Coffey, H. S.(1955). *Interpersonal Diagnosis : Some problems of methodology and valid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50, p.110~114
- Meyers, G.E. & Meyer, M.T. (1973)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A Laboratory Approach*. N.Y.:McGraw-Hill, Inc.
- Olson, D.H. Sprenkle,D.H. & Russell,C.S.(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a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 Satir, V.(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s.
- Schutz, W.C.(1958). *FIRO :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 Rinehart & Company, Inc.
- Sullivan, H.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W.Horton.
- Walsh, F. (1983). *Family Therapy A Systematic Orientation*. Aron Rosenblatt and Diana Waldfogel eds, *Handbook of Clinical Work*, San Francisco: Jossgy-Bass Publishers, p18
- Wright, C.(1975). *Mass communication*. New York: Random House.

<Abstract>

## The Influence of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Choi, Eun-kyung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

1. How different i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by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2.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3. How does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have an influenc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4. How is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by child gender, parent education level and family atmosphere?

The sample group was 550 male and female students of a college in Jejudo and finally 459 students were selected as a sample group in order to verify these task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was Kim, Joo-bun(1994)'s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inventory that covers four subareas: placating, blaming, computing and distracting communication. Another one to track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of the students was An, Beom-hui(1985)'s human-relations disposition inventory that deals with seven subareas: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independence-responsibility, sympathy-reception, sociability-friendliness, rivalry-aggression, ostentation-narcissism and resistance-distru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F-test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Pearson coefficient analysis was implemented to see how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was correlated to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see how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has an influenc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t-test and F-test were employ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child gender, parents education level and family atmosphere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father shared more placa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inclined to be strongly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receptive, rival-aggressive, ostentatious-narcissistic. Father share more blam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more attached to resistance-distrust,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and rivalry-aggression, and they were less attached to sociability-friendliness. Father shared more compu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inclined to be strongly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rival-aggressive, and father shared more distrac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more attached to resistance-distrust,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and they were less attached to sociability-friendliness.

Mother shared more placa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inclined to be strongly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receptive and ostentatious-narcissistic. Mother shared more blam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more attached to ,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rivalry-aggression and resistance-distrust. Mother shared more compu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inclined to be strongly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and mother shared more distrac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were more attached to dominance-a sense of superiority, resistance-distrust and they were less attached to sociability-friendliness.

Second, if father shared placa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receptive, ostentatious-narcissistic, and if father shared blam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dominant-superior, resistable-distrustful, rival-aggressive and they showed not to be sociable-friendly. If father shared compu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rival-aggressive, ostentatious-narcissistic. If father shared distrac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and they showed not to be sociable-friendly.

If mother shared placa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sympathetic-receptive, ostentatious-narcissistic, rival-aggressive, independent-responsible, dominant-superior and if mother shared blam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rival-aggressive and ostentatious-narcissistic and they showed to be not sociable-friendly. If mother shared compu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and they showed to be not sociable-friendly. If mother shared distracting communication with children, children showed to be resistable-distrustful, dominant-superior, rival-aggressive and they showed to be not sociable-friendly.

Third, father's placa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so that children were independent-responsible, rival-aggressive, sympathetic-receptive and resistable-distrustful. Father's compu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so that children were resistable-distrustful, sympathetic-receptive, dominant-superior, ostentatious-narcissistic and rival-aggressive. Father's distrac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negatively, so that children were resistable-distrustful, not sociable-friendly.

Mother's placa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so that children were dominant-superior, sympathetic-receptive, ostentatious-narcissistic, independent-responsible, resistable-distrustful. Mother's compu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negatively, so that children were resistable-distrustful. Mother's distracting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so that children were resistable-distrustful and dominant-superior.

That is,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totally affecte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negatively.

Fourth, Women were more sociable-friendly than men and the most effective background to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was the family atmosphere that children perceived. Family was more peaceful, children were more sociable-friendly, ostentatious-narcissistic, and family was not peaceful, children were resistable-distrustful.

It'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family should be healthful and peaceful for children to build mor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kind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sed.

<부록-설문지>

## 부 록

배경변인 검사지.....67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검사지.....68

대인관계 성향 검사지.....70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기가 시작되어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자신에 대해, 부모님과의 대화 등에 관하여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 바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은 저의 연구와 후속연구에도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보다 나은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이 평소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묻는 문항이 많아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성실하게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성의있고 솔직한 응답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 은 경

### ▶ 설문지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

1.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이 평소 생각한 것과 가장 가까운 번호 1개만 골라 해당 칸에 “V” 표 해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에는 상상해서 답해주세요.
2. 기타의 ( )안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히 적어 주십시오.

※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 ① 남  
— ② 여

2. 아버지의 학력

- ① 초졸
- ② 중졸
- ③ 고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 이상

3. 어머니의 학력

- ① 초졸
- ② 중졸
- ③ 고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 이상



4. 내가 생각하는 가정분위기는?

- ① 매우 화목한 편이다.
- ② 화목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화목하지 않다.
- ⑤ 매우 화목하지 않다.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아버지와 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V표를  
하여 주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는 편 이다	그 저 그 렇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아버지는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2	무조건 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3	나에 대한 모든 일에 아버지의 주장대로 결정하지 못하신다.					
4	자신은 나와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신다.					
5	자녀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신다.					
6	일이 잘못 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신다.					
7	잘못도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					
8	자녀의 말을 무시한다.					
9	자녀에게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신다.					
10	화를 잘 내신다.					
11	칭찬보다 야단을 잘 치신다.					
12	명령적하시고 지시적이시다.					
13	흠이나 잘못을 잘 꼬집는다.					
14	불평불만이 많으시다.					
15	너그럽지 못하시다.					
16	나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17	논리적이고 이유를 잘 따지신다.					
18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신다.					
19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강조하신다.					
20	일관성이 없으시다.					
21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말씀하신다.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신다.					
23	못 들은 척하면서 탄전을 피우신다.					
24	주제를 자주 바꾸신다.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V표를  
 하여주세요.

번 호	내 용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는 편 이다	그 저 그 렇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어머니는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2	무조건 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3	나에 대한 모든 일에 어머니의 주장대로 결정하지 못하신다.					
4	자신은 나와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신다.					
5	자녀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신다.					
6	일이 잘못 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신다.					
7	잘못도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					
8	자녀의 말을 무시한다.					
9	자녀에게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신다.					
10	화를 잘 내신다.					
11	칭찬보다 야단을 잘 치신다.					
12	명령적하시고 지시적이시다.					
13	홈이나 잘못을 잘 꼬집는다.					
14	불평불만이 많으시다.					
15	너그럽지 못하시다.					
16	나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17	논리적이고 이유를 잘 따지신다.					
18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신다.					
19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강조하신다.					
20	일관성이 없으시다.					
21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말씀하신다.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신다.					
23	못 들은 척하면서 탄전을 피우신다.					
24	주제를 자주 바꾸신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들에게 충고나 조언 등을 잘한다.					
2	남들로부터 잘난 척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또래 친구가 지시하는 일을 잘 따르지 않는다.					
4	남으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5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6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 애쓴다.					
7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8	남들에게 별로 화를 내는 적이 없다.					
9	경기나 게임에서는 내기를 해야만 신이 난다.					
10	윗사람에게라도 따질 일은 따진다.					
11	칭찬을 받으면 그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12	어느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13	지도자가 하는 일이 늘 마땅치 않다.					
14	윗사람의 말이라 해서 다 믿지는 않는다.					
15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그들의 의견을 윗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자주 한다.					
16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7	남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18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기를 좋아한다.					
19	남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길 좋아한다.					
20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 한다.					
21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 한다.					
22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3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지면 나도 곧 갖고 싶어진다.					
24	토론을 할 때마다 말싸움을 벌이길 좋아한다.					
25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끔씩 유별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26	나의 용모나 옷차림에 대해 자신이 있다.					
27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연히 반발심이 생긴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미덥지 못해 부탁하는 일이 별로 없다.					
29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릴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시키길 좋아한다.					
30	내 의견과 틀리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31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이에 맞추어 일을 수행한다.					
32	부탁받은 일은 밤을 세워서라도 한다.					
33	남의 일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잘 한다.					
34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찾아오지만 귀찮지 않으면 성의껏 대한다.					
35	혼자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편이 좋다.					
36	남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37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					
38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다툰다.					
39	여러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길 좋아하고 더러는 과장해서 말한다.					
40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집안 식구들로부터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42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43	어떤 모임에서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44	어느 모로 보나 친구들보다는 내가 유능하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45	남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내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좋아하며 이에 만족한다.					
46	약속을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나오는 때가 많다.					
47	경기에서 지는 편을 응원한다.					
48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격려해 준다.					
49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 질 수 있다고 한다.					
50	혼자보다 여럿이서 일하거나 공부하기 좋아한다.					
51	어떤 일이고 친구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52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직성이 풀린다.					
53	남 앞에서 나의 집안일이나 나의 자랑을 잘 한다.					
54	사람들은 나를 꽤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55	남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56	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57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5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59	누가 도와주거나 칭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0	나는 무슨 일이나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한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1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62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온다.					
63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도 잘 맞춘다.					
64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다.					
65	남들과 다투는 일이 종종 있다.					
66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67	옷차림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다.					
68	친구와 있을 때 내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69	돌멩이나 그 밖의 물건을 차는 경우가 있다.					
70	내게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부터 한다.					
71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잘 따른다.					
72	누가 묻는 것에 모른다고 답하기를 싫어한다.					
73	내게 부당한 일은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옹호한다.					
74	내가 빌린 것은 제 때에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75	결연이나 껌팔이 소년(소녀)을 보면 돈을 준다.					
76	나에게 잘못된 친구들도 곧잘 어울리게 된다.					
77	여행 중에는 낯선 사람과도 곧잘 얘기를 나눈다.					
78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79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앞지르고 싶다.					
80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고통을 준다.					
81	자그마한 일에도 곧잘 흥분한다.					
82	한참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자주 있다.					
83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말은 일단 반대하고 본다.					
84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없다.					